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안치

시, 세종시 추모의 집서 총 44개체·유품 84건 엄숙히 안치·희생자 넋 위로 위한 추모제례 진행

전주시가 한국전쟁 당시 좌익과 우익의 이념 대립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추가 발굴해 영면에 들도록 안치했다.

시는 지난 21일 세종시 추모의 집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성홍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김건우 전주대학교 박물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 안치식을 가졌다.

지난 2019년 선제적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시는 지난해 7월 황방산 일대에서 수습된 유해 34개체와 유품 129건을 안치시킨 데 이어 2번째 안치식을 갖게 됐다.

시는 이번 안치식에서 지난번보다 10개체가 늘어난 총 44개체와 유품 84건을 엄숙히 안치했으며,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제례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갖고 2차 유해발굴을 마무리한 시는 유해매장 추정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성홍제 유족회장은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유해발굴 사업은 우리 역사에 대한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면서 "앞으로 유해 발굴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모의 집에 안치하는 등 희생된 영령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지난 21일 세종시 추모의 집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성홍제 전주형무소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장, 김건우 전주대학교 박물관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해 안치식을 가졌다.



“미안마의 봄”을 응원합니다

전주시 직원 적극 호응 속에 응원티셔츠·도시락 판매 바자회 열려

전주시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안마 국민들을 위한 모금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미안마 유학생과 미안마 민주화 지지 전주연대는 지난 21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미안마의 봄’을 응원하는 티셔츠와 미안마 전통음식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한옥마을 경기전, 동물원 등에서 티셔츠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으며, 21일 진행된 티셔츠 판매행사와 바자회에 적극 참여했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미안마에 불이 오기를 바라는 전주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전주연대 측에서 준비한 티셔츠 300장과 도시락 150개, 밀크티 300잔이 완판

됐으며, 티셔츠 추가 주문 등을 통해 총 700여만 원의 모금실적을 거뒀다.

이에 앞서 시는 학업 지속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미안마 유학생 13명에게는 7월 31일까지 도서관과 한옥마을 등 공공시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전주시 공무원들은 지난달 22일 자발적인 참여로 1,700여만 원을 모금했다. 전주시치과의사회와 전주시 여성체육위원회, 모악산 금선암 신도, 전북총학생회협의회 등 전주시민들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미안마에 하루 빨리 민주주의의 봄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멘토와 꿈꾸다 직업체험 지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22일 위기청소년 34명과 함께 직업체험 지원 프로그램인 ‘꿈멘토와 꿈꾸다’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꿈멘토와 꿈꾸다’는 청소년들이 직업현장으로 찾아가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가 꿈멘토로 참여해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활용해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김지효 향기담은다육공방 대표가 꿈멘토로 참여해 공예전문가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미리 배부된 키트를 활용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정혜선 센터장은 “랜선을 통한 온라인 만남이었지만 꿈멘토의 생생한 직업 이야기와 직업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찾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jisangdam.or.kr)를 확인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멸종위기 맹꽂이, 새 보금자리로 이사

전주시, 최근 조성된 삼천 생태학습장서 230여 마리 방사

삼천의 임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서 살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때문에 멀리 떠나야했던 멸종위기 동물 맹꽂이가 최근에 조성된 삼천 생태학습장으로 돌아왔다.

전주시와 전주생태하천협의회는 지난 21일 홍산교 옆 삼천 생태학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위원,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0여 마리의 맹꽂이 방사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방사된 맹꽂이들은 지난 2013년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착수한 전주시가 과거 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됐던 곳에서 약 8,600톤의 매립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획됐다. 보금자리를 잃은 맹꽂이들은 임시로 전주수목원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하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삼천 생태학습장이 조성되자 원래 서식처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곡의 유지원생 20여 명이 맹꽂이 모습을 관찰하며 맹꽂이 생태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했다.

시는 이날 방사한 맹꽂이들이 새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7억원가량을 투입해 평화2동 원당교부터 서신동 전주천 합류점까지 총 9.8km의 구간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수달, 반딧불이, 맹꽂이 등 희귀·멸종 위기종 등이 안정적인 서식을 할 수 있도록 쓰레기가 매립됐던 공간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했으며, 저수호안과 산책로 등을 정비했다. 사업이 완료된 최근에는 수달과 반딧불이가 발견되면서 생태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멸종위기에 놓인 맹꽂이를 위해 쓰레기장이었던 옛 집에서 생태학습장이라는 새집으로 이사시킨 것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라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해 후대까지 공유할 수 있는 자연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전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시민들에게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종류, 주

소 면적, 방 칸수 등) ▲임대계약내용(계약기간, 임대료, 체결일 등)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임대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받을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등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알방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이지만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